

HRI 체어퍼슨노트

# CHAIRPERSON NOTE

2012.03.05 (통권389호)



## 경제이슈

미국 소비자신뢰지수 1년래 최고

2월 소비자물가 3.1% 상승

## 경영노트

기술경영의 본질 및 지향점

## 사회 트렌드

클릭 후 인쇄심의 한계 0.25초

보는 SNS '핀터레스트' 돌풍

## 저널 브리프

기업 인수·합병의 성공 유형

## 洗心錄

좋은 소설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

□ 미국 소비자신뢰지수 1년래 최고

- 미 컨퍼런스보드에 따르면 2월 소비자신뢰지수<sup>1)</sup>가 70.8로 1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하였고, 노동부도 3월 고용지표가 개선되었음을 발표함
  - 소비자신뢰지수 동향 : 2011년 2월 72.0을 기록한 이래로 최고치를 달성하였고, 전월대비 9.3p가 증가함
  - 고용지표 개선 : 미국의 신규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5만 1천건으로 2008년 3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여, 고용시장이 회복세를 나타냄
  - 경기동행지수 상승 : 경기상황에 대한 기대치를 의미하는 경기동행지수도 45를 기록하여 전월대비 6.2p 상승하였고, 향후 6개월 경기 기대치 역시 76.7에서 88.0으로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음
- 미 경제활동의 약 70%를 차지하는 소비자 지출이 빠른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어, 2012년 미국의 고용시장 개선 및 경기회복이 전망됨

□ 2월 소비자물가 3.1% 상승

- 2012년 2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3.1% 상승하여 1월의 3.4% 상승에 비하여 -0.3%p 하락
  - 농축수산물 : 축산물이 사육두수 증가의 영향으로 돼지고기, 국산쇠고기 등의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여 농축수산물의 물가는 전년동월대비 0.3% 상승으로 안정세를 보임
  - 공업제품 : 미국의 이란제재 등 중동정세 불안의 영향으로 석유제품이 크게 올라 공업제품은 전년동월대비 4.7% 상승
  - 서비스 : 공공서비스는 안정세를 보였으나 개인서비스와 집세의 상승세가 지속되어 서비스물가는 전년동월대비 2.5% 상승
- 소비자물가는 기저효과로 당분간 안정세를 보일 전망이지만, 이란 핵문제 등 국제유가 불안으로 인한 석유제품 가격 상승이 우려됨

1) 소비자신뢰지수(consumer confidence index)는 미국의 경제상태를 나타내는 경기선행지수 중 하나로, 90을 넘으면 경제가 견고한 상태에 있고, 100을 넘으면 강력한 성장을 가리킴.

□ 기술경영의 본질 및 지향점<sup>2)</sup>

- 기업이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발전방향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
  - 불확실성하에서 기술 개발 그 자체보다 어떤 기술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더 큰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어떠한 전략을 이용할 지가 중요
  - 기술만능주의를 지양하고 인간을 지향하며, 환경과 시장 참여자를 고려한 기술을 기반으로 산업·기술간 융합을 꾀할 때 시너지 창출 가능
- 올바른 기술 발전 방향의 해법은 기술의 본질과 지향점, 생존전략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조명 가능
  - (본질) 기술적 탁월성은 물론 기술을 사용하는 인간들이 느끼게 될 유용성을 함께 고려해 양극단 사이에서 최적점을 찾는 것이 중요
  - (지향점) 표면에 드러난 문제만이 아니라 이면에 드러나지 않은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는 통합적 접근을 통해 시장을 재구성할 때 가치 창출
  - (융합전략) 한 번 탄생한 기술이 장기간 영속하며 생명력을 가지려면 다양한 분야에서 융합을 시도해야 함

< 기술경영의 성공 및 실패사례 >

	내 용
기술의 본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니는 베타맥스, 미니디스크, 블루레이 등 훌륭한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사용 환경의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고 실패</li> <li>• 애플은 소비자를 위해 아이콘 방식의 인터페이스를 창안했고, 아이폰의 성공은 다수의 곡을 쉽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는 휠 버튼 때문</li> </ul>
기술의 지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키아는 심비안이라는 스마트폰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으나 다양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실패</li> <li>• 구글은 광고주로부터 돈을 받아 광고 플랫폼을 본인 소유의 웹페이지에 심어주고 파트너와 광고 수익을 배분하는 형태로 가치 창조</li> </ul>
융합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키아의 게임기형 휴대폰 'N-Gage'는 너무 게임 기능에만 집중한 나머지 휴대폰의 본래기능인 통화기능이 불편하여 실패</li> <li>• K-POP은 유튜브 등 SNS를 이용하여 세계적으로 다수의 팬을 확보하고, SNS업체들은 광고수익을 창출하게 되는 상호 시너지 형성</li> </ul>

2) 본 자료는 동아비즈니스리뷰의 '기술혁명시대 생존키워드 : 중도, 통합, 융합(2012.02)'를 요약 정리함

### □ 클릭 후 인내심의 한계 0.25초<sup>3)</sup>

- 네티즌들은 인터넷 창을 띄울 때 눈 한번 깜빡일 정도의 짧은 시간도 참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옴
  - 뉴욕타임스는 구글의 조사를 인용, 인터넷 이용자들이 검색 사이트를 이용할 때 새로운 창이 뜨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다른 업체보다 0.25초 이상 길면 속도가 느리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함
  - 0.25초는 눈을 한 번 깜빡이는 시간인 0.4초보다도 짧은 것임
  - 투수가 시속 99마일(159km)로 공을 던졌을 때 포수에게 도달하는 시간이 0.417초임
- 인터넷 사용자들이 속도에 예민해진 것은 인터넷 속도가 날이 갈수록 빨라지기 때문이라는 분석
  - 경쟁업체에 비해 0.25초 이상 느리면 방문자 감소를 각오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옴

### □ 보는 SNS ‘핀터레스트’ 돌풍<sup>4)</sup>

- 문자보다 이미지 공유에 무게를 둔 새로운 개방형 SNS인 ‘핀터레스트(Pinterest)’ 붐이 일고 있음
  - 예일대 출신 벤 실버만이 냉장고 등에 메모 사진 등을 붙여두는 데서 아이디어를 얻어 만든 이 SNS는 2010년 3월 선보인 뒤 2년도 채 안된 지난 1월 순방문자수가 1170만 명에 이룸
  - 핀터레스트는 핀(pin)과 관심(interest)를 합성한 말
  - 이용자가 몰리면서 주요 SNS 중 최단기간에 방문자수 1000만 명을 돌파한 웹서비스가 된 것임
- 핀터레스트가 급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여성 이용자의 덕분
  - 여성 가입자 비율이 68%, 적극적 사용자 중 여성 비율이 80%임
  - 핀보드에 게시되고 있는 ‘다시 전파(리핀)’ 되는 내용 중 대부분은 실내 장식, 패션, 음식 등 여성들이 좋아하는 주제들임

3) “클릭 후 인내심의 한계 0.25초”(한국경제신문, 2012.3.3)

4) “보는 SNS ‘핀터레스트’ 돌풍”(매일경제신문, 2013.3.3)

□ 기업 인수·합병의 성공 유형<sup>5)</sup>

■ 글로벌 컨설팅업체 맥킨지는 성공적 인수·합병 유형을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함

- 단, 아래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기업의 내재가치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면 인수·합병에 성공했다고 볼 수 없음

① 피인수기업의 실적 개선

- 기업을 인수한 후 비용을 절감하여 피인수기업의 수익 및 현금흐름을 개선시키는 전략

- 가장 일반적인 전략 중 하나지만 피인수기업의 영업이익률이 지나치게 낮았던 경우가 아니면 큰 실적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움

② 산업 내 과잉 생산 해소

- 성숙 산업 시장에서 공급 과잉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한 후 생산성이 낮은 공장들을 퇴출시켜 공급 문제를 해소하는 전략

- 단, 이 경우 창출된 가치의 상당 부분이 인수기업이 아닌 피인수기업의 주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함

③ 제품의 시장접근성 향상

- 혁신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영업력 부족으로 고전하는 경우 더 큰 규모의 기업이 해당 기업을 인수하여 판매를 촉진하는 전략

- 인수기업의 홍보 및 판매능력이 피인수기업보다 우수하지 않으면 인수·합병할 이유가 없음

④ 기술 개발에 따르는 시간·비용 절감

- 기술을 자체 개발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 기술 보유 기업을 인수·합병하여 더욱 신속하고 저렴하게 기술을 확보하는 전략

- 인수·합병 금액이 기술 개발에 투자되는 비용보다 크다면 인수·합병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함

⑤ 유망한 산업분야 진출

- 신생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다른 기업들이 인식하기 전에 빠르게 인수·합병하는 전략

- 단, 이 경우 인수기업이 피인수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능력과 인내심이 충분하다는 전제조건이 요구됨

---

5) '가치창출 M&A 유형 5가지'(매일경제, 2012.02.03) 참조

□ 좋은 소설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사회 속에서 다른 구성원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남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특히 네트워크가 자산이 되고 경쟁력으로 평가받는 시대에 있어서 더 그러하다고 하겠다. 인간에게 이성뿐만 아니라 감성이 있기 때문에 남을 이해하는 방법도 최소한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다. 상대방의 이름, 나이, 학력, 직업, 직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정보를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것이 전자에 속한다면 상대방의 기분이나 느낌을 공유하는 것, 즉 “동감(同感)(empathy)”은 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당연히 양자 모두 중요하지만 “EQ(Emotional Intelligence)”시대의 도래가 자주 언급되는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최근 후자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어떻게 동감(同感)의 역할을 증진시키느냐가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는 말은 이번에도 그 위력을 유감없이 발휘해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동감(同感)의 능력을 향상시킬 여러 가지 방법들을 연구하고 제시하도록 만들고 있다. 그중 눈길을 끄는 것은 소설(小說)의 기능으로 놀라운 점은 이를 과학적으로 입증하려는 노력 또한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캐나다 토론토대 응용심리학과 교수인 키쓰 오틀리(Keith Oatley)는 2008년 166명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했다. 이들에게 안톤 체호프(Anton Chekov)의 단편소설, 이보다 가벼운 비교적 평범한 소설 그리고 다큐멘터리를 읽게 한 후 이전과 비교해서 독자들의 개성이나 감정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조사하였다. 그는 체호프의 소설을 읽은 사람들에서 소설 속에 공감하고 그 주인공과 비슷해지는 정도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는 것을 발견했다. 오틀리 교수는 이에 대해 “소설을 읽는 동안 자아가 타자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기 때문이다”라고 그 이유를 추정하였다. 그는 “소설의 주제는 왜 주인공이 그렇게 했을까 혹은 만약 그렇다면 그가 무엇을 해야 했을까 등으로 소설을 읽는 동안 독자는 이런 생각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서 “소설을 읽으면서 독자는 주인공이 처한 상황 속에 자신을 놓아보고 그 마음을 헤아려보기도 하면서 주인공의 행동을 주인공의 입장에서 보게 되다”고 첨언하였다.

하버드 대학교의 여성 철학자인 마사 너스범(Martha Nussbaum)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사회현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소설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벌써부터 강조하고 있다. 곧, 실업률과 물가는 분명 경제적 수치지만 이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로부터 영향 받는 인물들의 이야기가 단순한 통계보다 훨씬 탁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흑인 노예들의 비참한 생활을 다루었던 해리엇 스토크(Harriet Stowe)의 ‘톰 아저씨의 오두막(Uncle Tom's Cabin)’과 세계 제2차 대전 당시 자신의 숨 쉰이는 하루하루를 기록했던 안네 프랭크(Anne Frank)의 ‘안네프랭크의 일기(The Diary of a Young Girl)’가 각각 남북전쟁 촉발과 독일 제국의 만행을 각인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 것도 바로 이런 소설의 힘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당연히 모든 소설이 같은 정도로 독자들의 동감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아닐 것이다. 오틀리 교수가 체호프의 소설보다 인간의 감정을 움직이는 힘이 적은 소설을 동원했다면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을 수도 있다. 이는 의도하지 않게 소설에 있어서의 ‘고전(古典)(classics)’ 또는 좋은 소설의 중요함으로 연결된다고 하겠다. 좋은 소설은 경우에 따라 굵이굵이 돌아가지도 하지만 마음과 마음을 연결해서 다른 사회구성원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세상을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 여기에 재미까지 덩으로 얻을 수 있다. 이 두 가지만으로도 우리가 좋은 소설을 가까이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기에 충분하다.

그는 아무 것도 모른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정치가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다.  
- 버나드 쇼(1856~1950) : 아일랜드의 문학가